

독재와 저항의 수레바퀴

◇ 학술평론 — 80년대 한국역사 개관

I. 들어가며

우리가 1980년대라는 과거를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그 시기의 역사적 경험은 오히려 역사학계의 관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상이기도 하다. 그 결과 1980년대 역사적 사실의 올바른 평가를 통하여 현재를 되짚어보고 미래를 전망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의 '역사적 경험'을 '역사'로서 재구성하였다.

II. 80년대 역사 개관

1979년 10. 26사건으로 대중의 지지가 기반이었던 박정희정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러나 유신체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잔존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정치군인'들은 12월 12일 한병 쿠데타를 단행하여 군대의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정치권력도 장악하려고 하였다.

'민주화의 봄'이라고 불려지던 1980년 초 대중은 군사독재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1980년 4월 부산, 인천지역 칠강노동자들의 파업과 사북지역 광산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비상계엄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은 더욱 확산되었다.

민주화열기가 대중적으로 분출하자 신군부세력은 5월 17일 제2의 쿠데타인 '5. 17 비상계엄화

대조치'를 감행했다. 5. 17쿠데타를 통해서 신군부는 주요정치인을 체포 구금하는 한편,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5월 31일 신군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집권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회의 과반수는 12·12쿠데타 주역들로 채워졌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이후 강압통치로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고 정치권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제10대 국회의원 231명 중 210명이 정치활동 규제대상자 되었으며 모든 민주적인 대중조직이 해체되었다.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1980년 말까지 약 5만 7천여명이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3천여명이 구속되고, 4만여명이 '삼청교육대'에 보내졌다. 이러한 작업 끝에 8월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유물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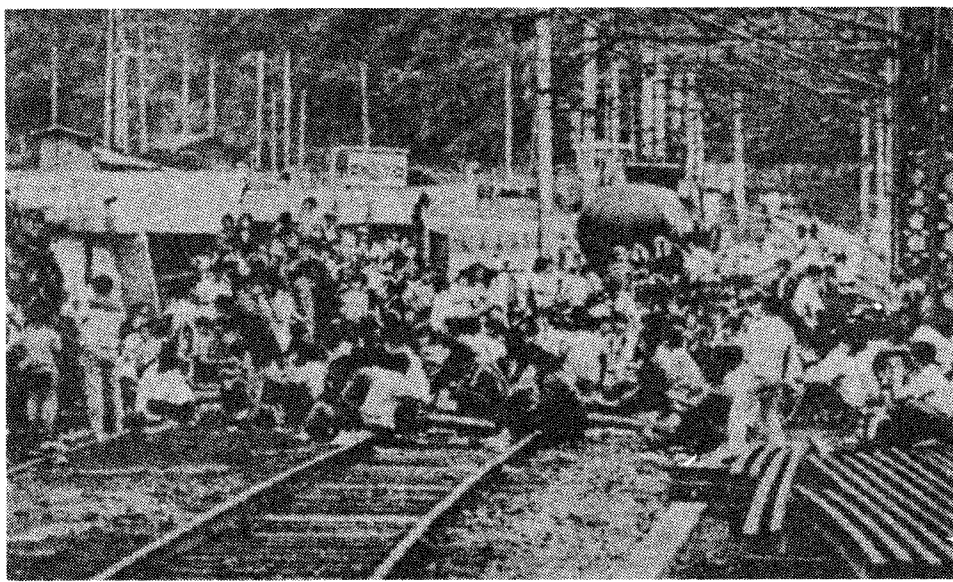
1980년대 한국사회 발전의 출발점은 광주민중항쟁에서 주어졌다. 광주민중항쟁은 1970년대 후반에 성숙한 민중운동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발전을 추동하는 계기였다. 특히 1980년 항쟁의 경험은 민족자주의식을 대중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새로운 세대들이 민중과 광범하게 결합하는 촉매로 역할하였다.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민중의 저항을 억누르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국제관계의 개선과 외세의 보호막으로 대치하고자 했다. 전자는 한국문제의 국제화를 통한 반

공 반북정책의 강화와 북방정책에 기초한 분단고착으로 구체화되었다. 후자는 레이건행정부의 전세계적인 대소 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동맹국 결합전략을 충실히 수용하여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일원으로 기능하는 것이었다. 또한 외국 독점자본과 상품에 대해 무분별하게 시장을 개방하여 국내산업 특히 농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경제의 대외예속이 심해졌다.

대외예속성과 반민주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두환정권은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1982년 장영자사건을 비롯하여 대규모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계속 이어졌다. 이런 사건은 대개 직접적으로 대통령일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정부는 적절한 공포분위기를 수시로 조성하면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을 대량 구속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고, 관제언론을 활용하여 민족민주운동세력 탄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정책은 전두환정권의 불안정성

압을 받았던 민중운동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1983년 경 '유화국면'을 정취하면서 점차 조직적 복구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경우 총학생회를 부활시켰으며, 나아가 '전학련'과 '삼민주'가 조직되었다. 1984년 정부에서는 노동



80년 4월 사북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은 비상계엄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의 계기가 되었다

반군부정치 항쟁 잇달아 변혁 교두보 마련 역사 흐름 속 과거·현재 연관의 맥 찾아야

이 극도로 심각하다는 것의 또다른 표현이었고, 계속 협소해지는 외세와 군사정권의 입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군사독재의 재편기에 심한 탄

조합결성과 어용노조의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었고, 합평농우회를 출발로 자주적 농민회 조직이 급속히 확대되어 농민운동의 중심조직으로 등장하였다. 이 시

의되면서 1980년대를 백가쟁명의 시기로 만들었다.

1986년을 전후하여 민족민주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였다. 변혁운동의 사상이론적 기초가 자주 민주 통일로 정립되었으며, 민중의 주도성이 강화되었다. 1987년 대중운동의 폭발적 고양은 대중운동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

1987년에는 거의 30년동안이나 지속되어온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각계각층 민중들의 투쟁이 한해동안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레이건의 '신개입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와 군사정권의 장기집권 의도를 저지하는 과정으로 시작한 이 해의 운동은 1월 14일 치안본부에 연행되었던 박종철군의 고문살인사건을 계기로 대중적 항의투쟁으로 불붙었으며, '4. 13 호헌조치'에 맞서 군부독재종식과 직선제 개헌을 위한 6월민중항쟁으로 발전하였다. 계속해서 7·9월에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대규모 노동자 대중투쟁이 남한 전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전개된 하반기 운동은 노태우후보 퇴진요구와 거국중립내각组을 위한 투쟁, 그리고 부

정선거 규탄투쟁으로 계속되었다. 1987년 대중투쟁은 전개양상과 성격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

다. 반독재민주화투쟁은 반의세자주투쟁과 결합하여 전개되었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요구투쟁이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면서 각 분야의 민족민주운동이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되어 '대중노선'의 기치하에 대중조직의 강화, 대중투쟁의 고양이라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1987년은 대중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해였다.

대통령선거에서 군사정권이 정치공작을 통한 야권분열 유도과 반민주적인 지역감정을 촉발시킨 결과로 노태우는 36퍼센트에 불과한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었다. 노태우정권은 지지기반을 강

화시켰다. 그 결과 전인구의 80퍼센트에 달하는 도시지역은 가중되는 교통난과 집값폭등으로 심각한 주거난을 겪었다. 또한 경제성장의 성과마저 투기적 이윤에 흡수되어 버림으로써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투기 심리와 '한탕주의'가 온 사회에 가득차, 일부 계층의 퇴폐향락적 대량소비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노동의욕은 상실되었다. 이러한 풍조는 여러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여 인신매매, 마약복용 등 범죄가 급증하였다.

1988년 11월에 시작된 국회청문회에서는 광주학살과 5공학살 비리가 폭로되어 다시 한번 군사독재의 반역사상이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민족민주운동전열은 '전·노 세력'의 즉각퇴진'과 '민주정의당 해체'를 주장하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활발하게 벌였다.

노태우정권은 1988년 12월 28일 이른바 '체제수호선언'을 발표하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나아가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990년 1월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을 통합하여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켰다. 3당 합당은 1988년 총선에서 집권 민정당을 참패한 결과를 뒤집고, 의회권력을 탈취한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근거인 선거의 결과마저 부인하는 반민주적인 것이며, 나아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민주자유당은 합당 직후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 도입을 폐기하여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국군조직법'과 '방축법' 등을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넓혀 나갔다.

3당합당 이후 지배방식의 특징은 강압적 통치형태를 유지하면서 군부가 정권의 배후에 자리잡고 민간정치인들이 정치무대의 전면에서 '의사 개량화'를 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강압적 통치형태는 지속되었다.

노태우정권은 소포츠나 퇴폐산업의 육성, 증산층 환상과 소비품의 조장, 지역 차별정책과 지역감정 조장, 국민들의 민주화요구를 피상적으로만 수렴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여 국민대중을 회유하였다. 그러나 외세지배하

에서 1980년대 대중운동의 특징은 강압적 통치형태를 유지하면서 군부가 정권의 배후에 자리잡고 민간정치인들이 정치무대의 전면에서 '의사 개량화'를 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강압적 통치형태는 지속되었다.

1987년 대중투쟁 이후 민족민주운동전열은 패배와 분열의 와중에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였다. 1988년 4. 26총선을 통해 야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각계각층 대중운동은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하였다.

12. 12 쿠데타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정치 군인들이 80년대 무대에 대거 등장하여 정치 권력 장악을 꿈꾸는데

파시즘지배구조의 해체와 관련한 반민주적법의 폐지와 폭압기구의 철폐, 그리고 민중생존권의 보장과 같은 요구는 외면하였다.

한편 세계경제의 일시적 조정에 따른 '3저현상'으로 인하여 1986년 이후 한국경제는 3년 동안 10퍼센트 이상의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의 양적 성장은 저임금과 저급가치를 바탕으로 국내의 독점자본과 군부, 관료층을 살려주고 나라 안으로는 중층을, 나라 안으로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법의 독소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개정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농민운동은 1987년 수세페지와 농지개량조합 해체투쟁을 전개하였고, 1988년 외국농축산물 수입저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반민주운동도 울림과 개화를 전후한 경제침체와 노점상 단속 속에 맞서 일어났다. 청년학생들은 단독울림과 반대 공동울림과 정취와 남북학생회담을 주장하면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노동운동은 노동조합법의 독소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개정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농민운동은 1987년 수세페지와 농지개량조합 해체투쟁을 전개하였고, 1988년 외국농축산물 수입저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반민주운동도 울림과 개화를 전후한 경제침체와 노점상 단속 속에 맞서 일어났다. 청년학생들은 단독울림과 반대 공동울림과 정취와 남북학생회담을 주장하면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남북학생회담 추진은 그동안 급기시 되었던 통일문제를 민족민주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조직을 새롭게 정비, 강화하여 대중적 토대를 넓혔다. 또한 각 부문과 지역조직의 발전에 기초하여 1989년 1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건설하였다. 이 단체는 민족민주세력을 폭넓게 망라한 연합전선체였다.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대응하여 노태우정권은 1989년 초 여의도 농민시위와 문익환 방북, 부산 동해대 사건 등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무차별 적용하여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른바 '공안정국' 속에서 대중운동은 상당히 위축되었다. 지하철노조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이철규 사인 진상규명투쟁은 전국차원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1989년 5월이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1천5백여 명의 교사가 해직당하는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수투쟁'에 참여하여 공안정국을 돌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9년 11월 '전국민민회총연맹'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연맹의 회'가 결성되었고, 4월에는 농민단체들이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통합되었다. 기층민중운동의 전국적 통일에 힘입어 '민지당 일당독재음모분쇄와 민중기본권정취 국민연맹'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물가 토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선전활동과 한국방송공사 현대중공업의 파업을 지원하였다.

한편 1989년에 들어와 청년학생들의 '평양축전참가투쟁'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남북교류운동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수경, 문규현 등이 방북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법민족대회가 열렸고, 1991년에는 7천만 겨레의 자주적 통일운동을 집약하는 범민족적 연합전선체로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되었다.

III. 나오며

1980년대 한국사회는 역사발전을 위한 귀중한 경험과 다짐들을 마련하였다. 우리가 역사의 첫 출발점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1980년대의 많은 사람들은 '첫 출발점'에 서 있다고 오해하였다. 1980년대의 역사가 1970년대 후반까지의 역사적 흐름, 그리고 1990년대 한국사회와 어떠한 연관 속에서 위치하는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1980년대 외세지배하 군사독재정권의 정치적 대중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졌으며, 반면에 민족민주운동은 이미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다수의 운동으로 어느 한 계층, 계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를 망라하는 대중운동으로 확산하였다. 1990년대 한국사회는 새롭게 도약하여 역사의 새 시대를 이룩할 것이다.

김 광 운

(한신대 강사·국사학)



시원한 물을 찾습니다!

봄이다. 만물이 대동하는 봄이 왔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 역시 대세에 거역할 수 없는 듯 맑은 기지개를 펴며 봄맞이에 여념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해보려 하고, 따라서 그에 걸맞은 여러 행사들을 만들어 내고, 또한 전수해주고 있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속중의 하나로 봄이 되면 우물물 '물갈이'라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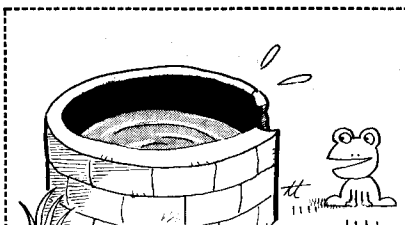
봄철 날이 가물때를 기다려 그간 우물물 고인 물을 밖으로 퍼내고 우물안에 묻어있는 이끼류를 닦아낸다. 맑은 물을 퍼내고 새로운 물의 기운을 받는다는 의미다.

청소를 마친후 춘부들은 황당어리운 우물안에 넣어둔다. 물의 맛을 좋게 하고 악취를 없앤다는 일종의 미신적 행사이다. '물갈이'는 우물물을 식수로 하는 이들에겐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세시봉자가 이렇듯 사라져가는 풍속에 대해 장구한 설명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전국을 휩쓸었던 총선의 열기가 가라앉고

있는 요즈음 새롭게 '물갈이'의 정치학적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자는 것이다. 정치권의 '물갈이'란 처음 나타났던 것은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우려나 새대교체론이었다.

특히 양 진영의 퇴진을 둘러싼 '물갈이'는 전선한 물결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그대로 우리나라는 생수대신 '돈'으로 치장된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 우물안으로 많이 들어간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민중들이 자생적으로 발하는 열효과는 증폭에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물안의 썩은 물을 말리기에겐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중들은 새로운 물을 퍼담기 위해 나름대로 신선하고 참신한 물을 찾아다녔으나 어느 경우에는 정수기에서 흘러나온 물이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민중들의 '물갈이'가 물을 다 퍼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다.

다시 한번 민중들이 시원스럽게 우물물을 가득채울 물이 없었으니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우물에 새로운 물을 부어 넣기 위해서는

이런 총선에서도 민중들은 아직도 '보수'의 벽을 쉽게 깨뜨리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태양'을 통해 우물안의 물을 말리고 새로운 물을 넣어보고자 했다.

그러나 민중들에게 선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전선한 물결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그대로 우리나라는 생수대신 '돈'으로 치장된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 우물안으로 많이 들어간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민중들이 자생적으로 발하는 열효과는 증폭에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물안의 썩은 물을 말리기에겐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중들은 새로운 물을 퍼담기 위해 나름대로 신선하고 참신한 물을 찾아다녔으나 어느 경우에는 정수기에서 흘러나온 물이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민중들의 '물갈이'가 물을 다 퍼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다.

다시 한번 민중들이 시원스럽게 우물물을 가득채울 물이 없었으니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우물에 새로운 물을 부어 넣기 위해서는

누군가 당신의 모교를 물어올 때 대학주보가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이제 직장이나 집에서 대학주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희의 역사는 명확한 목적의식과 진취적인 패기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그곳에는 언제나 '대학주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과속의 여유를 '대학주보'와 함께 하십시오. '대학주보'는 경희인의 思考와 理想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종합 학술·시사 주간지입니다.

〈대학주보 정기구독신청요령〉

졸업후에도 '대학주보'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본사에 오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FAX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주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신청전화: (02)961-0094

(02)963-5849

◇FAX: (02)963-5849

◇정기구독료: 1만원(1년 25회 276면 각회 1부기준)

◇기 타: 정기구독 신청시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고 가능한 한한 본사에 마련되어 있는 대학주보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접수시켜 주십시오.

대 학 주 보 사